

# 르노삼성·한국지엠 '내수시장 3위' 뜨거운 경쟁

## 한국지엠 쉐보레

7월 할부·혜택 70~250만원 할인

## 르노삼성

SM6 등 여름 특별 프로모션 진행

국내 완성차 업계의 순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내수시장 3위 자리를 놓고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 발표와 철수설 여파로 올 상반기 판매가 급격히 하락한 한국지엠과 '신차 부재'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르노삼성은 여름 성수기인 7월 가격인하와 프로모션을 통한 내수시장 회복에 나선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쉐보레는 7월 한 달간 올 뉴 말리부 가격을 최대 100만원 인하한다. 7월 한 달간 콤보 할부를 이용하면 현금 할인과 최대 72개월 할부를 통해 말리부 70만원, 트랙스 15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재고 차량 유류비

지원, 쉐보레 재구매 추가 혜택을 적용하면 말리부 190만원, 트랙스 250만원, 스파크 90만원, 아큐녹스 70만원의 최대 할인 폭을 제공한다.

크루즈와 임팔라, 트랙스, 캡티바는 60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해 고객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배기량 2200cc 이하 차량 보유 고객이 말리부와 트랙스 구매 시 50만원, 스파크와 아큐녹스 구매 시 3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아큐녹스 고객에게는 더블 로열티를 적용, 쉐보레 차량 구매 이력에 따라 최대 10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7월 한 달간 차량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 시즌을 맞아 '파노라믹 섬머'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르노삼성은 7월 한 달 간 여름 시즌을 맞아 개인 사업자 고객에게는 SM6를 비롯한 전 차종(전기차, 클리오 제외) 구매 시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SM6, QM6, SM7 구매 고객은 파노라

마 선루프 무상 증정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SM6(택시 제외)를 구매하는 고객은 최대 99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선루프 무상 증정 또는 80만원 상당의 옵션 및 용품 구입 비용 지원 또는 현금 70만원 지원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또 QM6를 구매하는 고객은 최대 105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선루프 무상증정 또는 70만원 상당의 옵션 및 용품 구입 비용 지원 또는 5년 보증연장 또는 현금 지원 50만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18년형 QM6 RE 시그니처 트림의 경우 250만원 할인의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QM3의 경우 LE 트림 구매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인조가죽 시트를 무상 지원하거나, 천연가죽 시트커버를 할인가에 제공한다. 여기에 여름 휴가비 12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QM3를 구입하면 총 150만원의 할인에 인조가죽 시트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형차 르노 클리오를 대상으로 36개월 할부 시 기준 3.9%의 금리를 2.9%의 낮은 금리로 변경해 제공한다. 일반 할부의 경우 2.9%(36개월), 3.9%(60개월)의 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한 스마트 잔가 보장 할부 프

로그램도 제공한다.

한편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은 1~5월 누적판매 기준 한국지엠은 2만9866대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르노삼성은 3만3800대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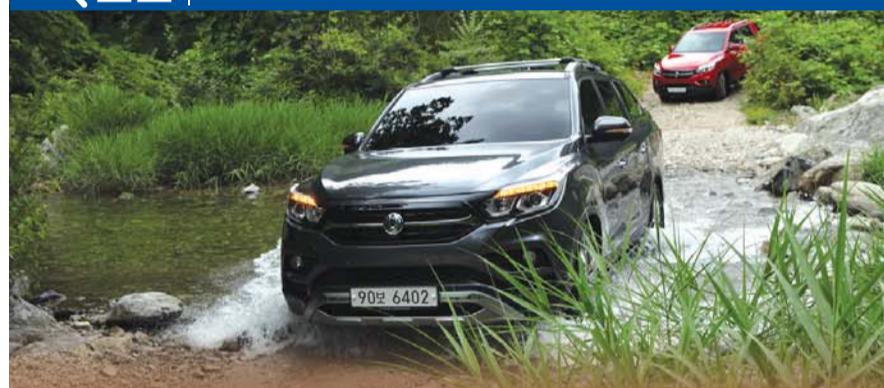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르노삼성 SM6.

## Q 르포 |

###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와 함께하다



## 렉스턴만의 '쿼드프레임·4트로닉' 압도적인 '오프로드 강자'로 탄생

차체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의 험로를 지나자 계곡물이 보인다. 일반 차량이라면 어립도 없을 길이었지만 여기저기 튀어나온 성난 돌들도 올창한 나뭇가지도 렉스턴 스포츠의 앞길을 막지는 못했다. 그만큼 오프로드에 적합한 내구성을 갖췄기 때문.

지난달 28일 쌍용자동차의 SUV 렉스턴 스포츠로 경기도 가평 칼봉산 오프로드를 누볐다. 이 길을 차로 어떻게 갈 거냐는 듯 신기하게 쳐다보는 등산객들이 많았다. 다른 차량이었다면 차체가 뒤틀렸을지도 모를 험한 길이었지만 렉스턴 스포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굽은 빗방울이 만들어낸 진흙길도 무리 없이 통과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 SUV를 선택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며 "최근 오프로드 마니아와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SUV 인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 국내 대형 SUV 시장은 2016년 2만9941대에서 지난해 3만 8598대로 28.9% 급증했다. 그중 렉스턴 스포츠는 지난달까지 누적판매량 1만5157대를 돌파했다.

쌍용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는 기존 중형 SUV 모델과 달리 쿼드프레임과 쌍용차만의 '4트로닉 기술'로 완성돼 압도적인 온오프라인 주행 성능이 특징이다.

고급모델에 적용되는 주간주행등(DRL)+포지셔닝+던시그널 일체형 헤드램프도 눈에 띈다. 사이드실 하단

까지 커버하는 클린실 도어가 있다. 최소화된 스텝폭은 누구에게나 승하차 편의성을 높였다. 경쟁 모델과 비교해 압도적인 용량(1011리터·VDA기준) 데크에 파워아웃렛(12V·120W)을 이용해 다양한 도구와 용품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회전식 데크후크는 적재 편의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내부는 커다란 7인치 TFT LCD 슈퍼비전 클러스터로 구성됐다. 높은 직관성과 함께 주행모드에 따라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시각효과로 만족감을 준다. 시트는 나파가죽 소재로 이뤄졌다.

렉스턴 스포츠의 파워트레인은 e-XDi220 LET 디젤엔진과 아이신 6단 자동변속기의 조합으로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을 응축했다. 최적화 과정을 거친 e-XDi220 LET 엔진은 최고출력 181ps/4000rpm, 최대토크 40.8kg·m/1400~2800rpm을 발휘한다. 압축비를 낮춰(15.5:1)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고 NVH(소음·진동) 성능을 강화했으며 세라믹 예열 플러그를 적용해 저온시동과 내구수명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온로드 주행 시 커브 길에서 쏠림현상이 있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 중 하나다. 디젤엔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승차감이 좋지는 않았다.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 충격이 탑승자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한편 렉스턴 스포츠는 4개 트립별로 2320만~3058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최상위 모델에 옵션을 추가할 경우 3000만원대 초반의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정연우 기자 ywj964@

## "4차 혁명, SDI 배터리 부문에 큰 성장기회"

### 전영현 삼성 SDI 사장

#### 차별화된 기술·인재육성 등 과제 제시

전영현 삼성SDI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 큰 성장'의 기회"라며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배터리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사장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시흥 본사에서 열린 창립 48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사물, 사람, 공간이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것은 곧 모든 사물에 동력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배터리 산업의 성장 기회"라고 임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삼성SDI 전영현 사장이 지난달 29일 삼성SDI 기흥사업장에서 열린 창립 48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삼성SDI

이날 전 사장은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더 차별화된 기술력 ▲더 역량있는 인재 육성 ▲더 혁신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또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전세계에 거

점을 운영하는 글로벌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각 부문에서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삼성SDI는 창립 48주년 기념일을 맞아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으로 걸음 묘모 활동인 '드림워킹', 제작 기부 봉사활동인 '핸즈온 릴레이', 명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드림 톡 콘서트'를 비롯해 전국 6개 사업장에서 7월 중순까지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영현 사장은 "드림아카데미가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접하는 창이되고 꿈을 키우는 즐거운 놀이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Advertorial Corner

## 한화 L&C '쉬:움' 보닥타일·플레이트, 셀프 인테리어 '대세'

나만의 공간을 직접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화L&C가 선보이고 있는 DIY(Do it your self) 대표 제품인 쉬:움, 보닥타일(BODAQ TILE), 보닥플레이트(BODAQ PLATE)가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1일 한화L&C에 따르면 '쉬:움'은 지난 2014년 봄 B2C 및 셀프인테리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친환경 접착식 DIY 바닥재다.

이 제품은 접착시트가 부착된 25cm 폭의 PVC 룸바닥재가 롤형태로 박스에 채워져 있다. 박스에서 바닥재를 필요한 만큼 뽑아 접착시트를 제거하고 바닥에 곧바로 붙이면 돼 커터칼과 줄자 등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공할 수 있다. 또 1박스 당 1평(3.3m<sup>2</sup>)의 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격화해 구입도 편리하다.

표면에는 특수 UV코팅층을 적용해 내구성이 좋고 청소 등 관리도 쉽다. 접착시트 뒤로 밀포드층을 적용해 보온, 단열 성능도 뛰어나다. 아득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패턴 6가지 디자인 및 패턴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집안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 및 패턴을

선택할 수 있어 나만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보닥타일'은 한화L&C가 국내 최초로 에폭시를 적용해 선보인 타일시트 제품으로 주방, 욕실 및 거실의 벽체 등에 주로 사용된다.

타일 리폼을 위해선 벽면을 뜯어내고 타일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충전재를 채워야하는 등 시공이 까다롭다. 하지만 보닥타일은 간단하게 이형지만 제거한 뒤 기존 타일면에 붙이면 간단하게 공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초보자들도 쉽게 원하는 부위에 선택적으로 부분 시공을 할 수 있다.

보닥타일은 현재 총 24종의 패턴이 있다. 초기에 선보인 제품에 비해 최근 내놓은 제품은 접착력을 50% 이상 향상시켰고, 습기 및 변형에 취약했던 종이 이형지를 PET이형지로 개선해 보관도 쉽다. 보닥타일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다.

'보닥 플레이트'는 스티커 타입의 벽면 마감재로 루버(louver)형태의 히어볼딩을 연출할 수 있어 멋진 벽을 손쉽게 꾸밀 수 있는 신개념 DIY 패널 제품이다. 특수 접착시트를 처리해 표면이 고르



한화L&C의 보닥타일(SQS01)을 적용한 욕실.

지 않은 벽에도 견고하고 깔끔하게 부착할 수 있다. 낙서로 지저분해진 아이방, 곰팡이로 얼룩진 발코니 벽체뿐만 아니라 유리, 타일, MDF(중밀도 섬유판)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할 수 있고 사후 관리도 쉽다.

친환경적인 점도 보닥 플레이트의 장점으로 꼽힌다.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6대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da@